



제목	실�크로드 기독교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일조각
발행일	2016. 8. 18.
저자	크리스토프 바우어 안경덕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67
ISBN 또는 ISSN	978-8933707173

내용 요약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들 중 하나인 아시아 동방교회의 기원과 전개 과정 그리고 현재의 당면과제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동방교회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이란 접경지역을 거쳐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으로까지 전파될 정도로 지리적으로는 가톨릭교회보다 더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독교 교회사자들은 물론 일반 역사가들도 서방교회 편향적이어서 동방교회의 존재와 역사적 의의를 간과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단일공동체였던 기독교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 참된 신조와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3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다. 동방교회는 그 3개의 교회 중 하나다. 동방교회라는 이름은 다른 2개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책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앗시리아 동방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네스토리안'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왜곡, 그리고 그 용어와 앗시리아 동방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장~4장은 동방교회의 기원, 초기 기독교의 이단 논쟁, 칼케돈 공의회 이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다. 5장~6장은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적 상황과 동방교회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7장~10장은 아랍 이슬람, 중앙아시아, 몽골, 이란 남부 지역의 동방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 11장은 앗시리아 동방교회의 자매교회 격인 칼데아 교회의 성립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12장에서 저자는 앗시리아 동방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동방교회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압제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교회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동방교회가 가톨릭교회나 개신교회가 가지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방에 뿌리를 둔 아시아의 교회라는 점에서, 기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정권의 통제가 풀리게 될 국가의 사람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